

스티브 잡스 전기 '열풍'

초판 10만부 출고 완료... 인터넷 서점 하루판매 최고기록
총장·영풍문고 하루만에 200부 팔려... 물량 학보 안간힘



“곧 죽을 거란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인생에서 커다란 선택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외부의 기대, 자부심, 좌절과 실패 등은 모두 죽을 앞에서 덧없이 사라지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 남기 때문입니다.”

태어난 지 몇 주 만에 입양기관을 거쳐 양부모에게 맡겨졌고, 대학에 입학했으나 6개월 만에 중퇴하면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갔다. 친구의 방바닥에서 잠을 자며 일주일에 한 번 주는 무료 급식을 얻어먹으려고 7마일(11.3km)을 걸어가기도 했다.

IT업계의 위대한 구루(스승·거장) 스티브 잡스,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었던 그의 삶이 담긴 전기 불타나게 팔리고 있다. 지난 5일 타계한 그의 공식 전기 '스티브 잡스'가 지난 24일 판매를 시작한 지 1일 만에 최고 판매 기록을 경신했다.

또 광주에서 첫 판매된 25일, 지역 서점 가에도 독자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구입 문의가 잇따르는 등 물풍을 일으키고 있다.

25일 인터넷서점 '예스 24'는 “전날 오후 판매에 들어간 ‘스티브 잡스’(민음사)는 출간 당일 모두 4700부가 팔리며 일일 판매량으로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07년 12월 발간된 해리포터 시리즈 ‘죽음의 성물’ 4권으로, 하루 동안 3천500여 부가 팔린 게 이전 기록이다.

이 책은 ‘예스 24’ 24일 일간 베스트셀러 1위는 물론, 예약 판매량을 포함해 주간 베스트셀러 순위에서도 1위로 올라섰다.

또 다른 인터넷서점 ‘알라딘’에서도 이 책은 24일 하루, 4000부가 팔리며 일일 판매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1Q84’나 법정스님의 저서 등을 뛰어넘는 수치다.

그의 전기기를 찾는 독자층도 넓어지고 있다. 판매 초기 20~30대 남성에 치우쳤던 독자층이 여성과 40대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예스 24’의 경우 구매자 가운데 30대 남성 비중이 28.8%로 가장 많지만 예약 판매 당시보다 여성 독자와 10대, 40대 독자의 비중이 늘고 있다. 또 ‘알라딘’에서도 초기에는 20~30대 남성의 구매율이 높았으나 현재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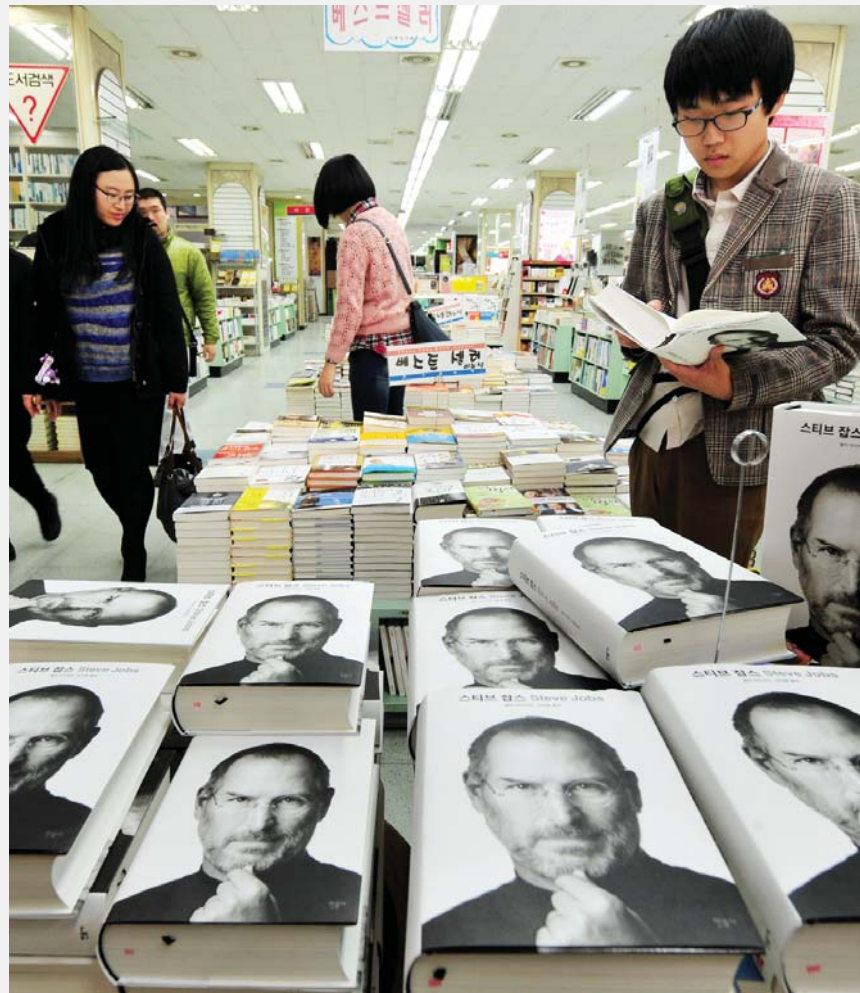
각각 53.4%, 46.5%로 비슷한 수준이다.

민음사 관계자는 “‘스티브 잡스’는 예약 판매로 선주문에 들어간 초판 10만부 모두가 출고 완료된 상태며, 8만부 추가 인쇄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 지역 서점가도 ‘스티브 잡스’의 구입이 폭발적으로 늘어 물량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광주 영풍문고에는 25일 ‘스티브 잡스’ 500권이 입고됐고, 오전부터 독자들이 꾸준히 사들여 첫날 100여 권이 판매됐다. 서점가가 한산한 화요일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엄청난 수치다.

영풍문고 관계자는 “해리포터 시리즈 때보다 30%가량 더 잘 팔리고 있고, 입고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이 팔린 책은 없었다”면서 “주말과 휴일에 ‘스티브 잡스’를 찾는 독자들이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보여 물량 확보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애플의 공동 창업자 고(故) 스티브 잡스의 전기 '스티브 잡스'가 광주에 첫 선을 보인 25일 총장서점에 독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80부가 입고된 광주 총장서점에서도 이날에만 모두 동났고, 스티브 잡스 관련 다른 서적의 판매도 꾸준히 늘고 있어 별도로 그의 관련 서적 판매대를 설치했다.

한편 그의 전기 판매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스티브 잡스 관련 서적도 잇따라 출간되고 있고, 기존에 나왔던 책들도 재출간되고 있다.

스티브 잡스가 공개 석상에서 한 발언들을 묶은 ‘스티브 잡스 어록’(라이터스), ‘스티브 잡스의 세상을 바꾼 말 한마디’(미르북스), ‘스티브 잡스, 그가 우리에게 남긴 말들’(티즈맵) 등의 신간이 서점가에 깔리기 시작했다.

또 “세상을 바꾼 상상력 스티브 잡스”(문이당), ‘실재가 두려운 청년을 위한 멘토, 스티브 잡스’(아지랑이) 등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책들도 첫 선을 보였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영성의 깊은 울림... 세계평화 메시지 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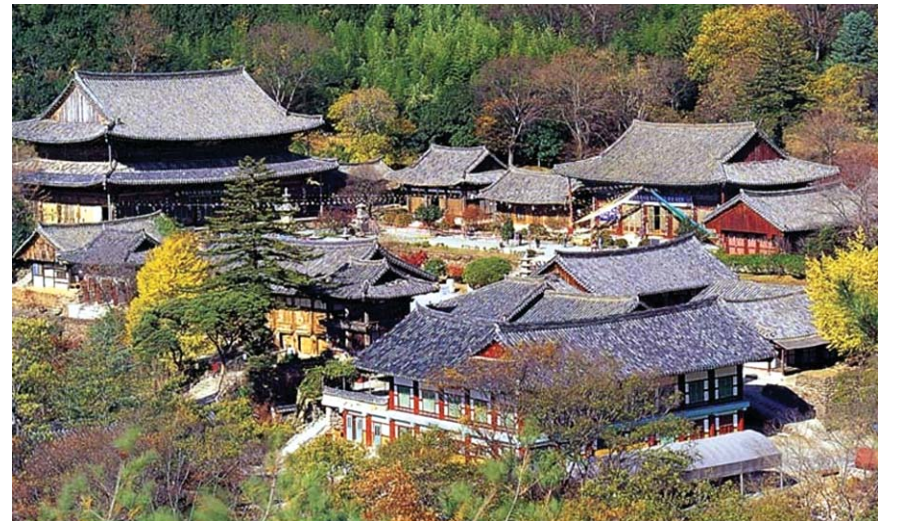
29일 '화엄제' 구례 화엄사

세계적인 영성음악가들이 마음의 안식과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음악을 선보이는 ‘2011 화엄제’가 오는 29일 오후 3시 구례 화엄사에서 열린다.

2006년 시작된 화엄제는 초가를 햇살 아래 지리산 자락의 맑은 공기와 새소리, 물소리, 바람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세계 각국 출신의 영성음악가들이 들려주는 영성음악을 듣고, 향기로운 차를 마시는 휴식과 치유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기쁨 마중’(Rejoicing Now)을 주제로 한 올해 화엄제는 데바 탐마요(스코틀랜드), 파리아트(독일), 신수극제음악합창단VPG(일본), 비빙, 솔이오카나라양상불(한국), 한국 전통음악앙상블 ‘바람꽃’이 출연한다.

이번 화엄제의 총감독은 작사·작곡가



겸 가수인 박지은 순천대 교수, 음악감독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의 원일교수가 맡았다.

화엄제에 참여를 원하는 이들은 화엄사 홈페이지(www.hwaom.org)에 개별

신청하면 된다. 전석 초대.

한편, 화엄사는 이번 ‘화엄제’와 함께 29~30일 템플스테이도 진행한다. 문의 061-782-7600.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윤진섭·장석원 '서양미술사 특강'

27~28일 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은 27일 오후 3시 분관 대강당에서 호남대 미술학과 윤진섭 교수를 초청해 ‘서양미술사 특강’을 연다.

시립미술관에서 열고 있는 ‘인상과 이후 서양미술의 거장전’(11월 13일까지)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특강에서 윤교수는 근현대 미술의 흐름과 특성, 주요 거장들의 작품에 대해 설명한다.

또 오는 28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전남대 미술학과 장석원 교수가 강사로 나와 독일의 국보급 작가 요셉 보이스의 예술 세계를 소개하는 특강을 연다.

이 특강에서 장 교수는 ‘모든 사람은 예술가다-요셉보이스’를 주제로 그의 작품 세계와 미술사에 남긴 발자취 등을 소개한다.



윤진섭

장석원

한편 ‘인상과 이후 서양미술의 거장전’은 마네, 피카소, 샤갈, 미로, 달리, 앤디워홀, 로이 리히텐슈타인 등 현대미술의 슈퍼스타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 모은 전시다.

또 ‘모든 사람은 예술가다-요셉 보이스’전은 요셉 보이스의 작품 362점과 퍼포먼스 등을 담은 사진 작품 30여점을 함께 선보인다. 문의 062-613-714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28일 '아시아에서 길을 찾다' 큐레이터 김선희 강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단장 이병훈)이 주최하는 ‘아시아 문화이해 공개강좌-아시아에서 길을 찾다’가 오는 28일 오후 3시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이야기로 그려보는 아시아의 현대미술’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의에는 큐레이터 김선희(사진)씨가 강사로 나서 최근 세계무대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아시아의 미술가들과 그들의 다양한 현대미술작품에 대해 소

개한다.

김씨는 한국국제교류재단 객원 큐레이터, 일본 도쿄 모리미술관 시니어큐레이터, 중국현대미술사 디렉터 등으로 활동했다.

문의 062-360-262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파파남성합창단 연주회

27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광주 파파남성합창단(단장 김정수·사진) 정기연주회가 27일 오후 7시 30분 광주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지난 2003년 파파중창단으로 출발, 이듬해 합창단으로 규모를 키운 광주파파남성합창단은 창원 전국교향합창제 그랑프리(2006), 제3회 대통령상 전국합창페스티벌 대상(2008) 등을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은 단체다. 또 성가곡 CD를 제작하고 정기연주회와 위문연주회를 수시로 갖는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이준(광주시립합창단 부지휘자) 씨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희망은 아름답다’, ‘찬 좋은인 주님’, ‘수선화야’, ‘비오는 날의 수채화’ 등 가요·가곡·성가를 아우르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준다.

이번 공연에서는 또 하모니서 성합창단과 목포 덕인고합창단이 찬조출연, ‘난 사랑을 몰라’, ‘도라지꽃’ 등을 선사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올 가을에도 정성을 다해 고객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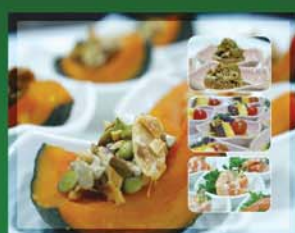
● 평일 주중 점심 특선 : 오찬정식 15,000원 ● 30년 전통의 한정식 : 25,000원부터 ●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출플러스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최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Be natural
Be delicious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유스퀘어 U-square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유스퀘어 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피부샵(스파치마사지) 인터넷 · 안마기 · 이용원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